



## FY2012 상반기,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9월 말 기준 6개 손해보험회사<sup>1)</sup>가 8개국<sup>2)</sup>에 진출하여 23개 점포(현지법인 16개, 지점 7개)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2012년 9월 말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신규영업 개시, 자본증자,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억 2,200만 달러 증가한 16억 4,000만 달러를 기록함.
- 총부채는 보험 매출 증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(2억 3,200만 달러)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억 2,800만 달러 늘어난 10억 5,800만 달러를 기록함.
- 자기자본은 전년동월대비 9,400만 달러 증가에 그친 5억 8,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1억 5,500만 달러 규모의 자본증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누적손실 규모가 8,200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임.
- 손익현황은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태국홍수와 뉴질랜드 지진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2012년에도 지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,410만 달러 감소한 640만 달러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냄.

■ 금감원은 낮은 해외점포 비중과 국내영업의 경쟁심화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회사의 해외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한편, 과감한 M&A 추진 등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현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.

- 또한, 개별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외점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해외 감독 당국 초청 및 세미나 개최 정례화, MOU 체결 등 감독당국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.

(FY2012 상반기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, 금감원, 12/12)

1) 삼성(8), 현대(6), LIG(4), 동부(2), 코리안리(2), 메리츠(1).

2) 미국(8), 중국(4), 인도네시아(3), 영국(2), 싱가포르(3), 일본(1), 브라질(1), 베트남(1).